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1년 4월 2호

◆ 주요 동향

1. 웨이하이(威海) '블루카본'경제 발전을 위한 중점임무 제시
打造蓝碳经济发展高地，这里确定“12356”重要任务！
2. 칭다오(青岛) 「해양공세(海洋攻势) 2021년 행동방안(3.0버전)」 발표
青岛印发《经略海洋攻势2021年作战方案（3.0版）》
3. 하이난성, 보아오(博鳌) 아시아포럼에서 세계도서연구센터 설립 제시
海南将建设全球岛屿研究中心！
4. 중국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표명
外交部召见日本驻华大使 就日方作出福岛核废水排海决定提出严正交涉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5. 광둥성, 4개 백억 위안급 연해문화관광사업 조성 계획
广东：4大百亿级滨海文旅项目成海洋经济新引擎
<https://mp.weixin.qq.com/s/JmS0d9bj4qvPYzejv35CHw>
6. 중국 첫 쇄빙기능 갖춘 대형 등대 수신선 '하이순(海巡)156'함 우한(武汉)에서 진수
我国首艘具有破冰功能的大型航标船“海巡156”轮在武汉下水
<https://mp.weixin.qq.com/s/NORVm97KL09KUVr5THvHXQ>
7. 중국 첫 대규모 인공번식 점박이물범 방류(총 8개 방류, 그 중 5개 인공번식)
8只斑海豹回家了！系我国首次大规模放归人工繁育斑海豹
<https://mp.weixin.qq.com/s/-B2az6qZRUfc8b23Go92Hg>
8. 중국선박그룹 해양플랜트연구원 건설 준공, 정식 운영 시작
中国船舶集团海洋装备研究院正式建成投用
<https://mp.weixin.qq.com/s/GuWrq-VTdCjIGYhn4Lym9w>
9. 웨이하이(威海)시 2021년 해양생태보호·복원사업 중앙재정 3억 위안 지원자금 획득
威海市2021年海洋生态保护修复项目成功获批！
<https://mp.weixin.qq.com/s/LxxillErAOd7JcvV2pkZVw>
10. 르자오(日照)시 해양어업연구원 정식 설립
日照市海洋与渔业研究院正式挂牌！
https://mp.weixin.qq.com/s/ZjYdncGPRRcV3c_6bTsf0w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웨이하이(威海) '블루카본'경제 발전을 위한 중점임무 제시

■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 신문판공실은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웨이하이시 '블루카본'경제 발전 실행계획 (2021~2025)」에 대해 설명하였음

■ 중점 고려사항

- '블루카본'경제를 해양경제 패턴전환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삼음. 기존 추진 업무를 기반으로 '아카데미션 워크스테이션(院士工作站)' 등 플랫폼에 의존해서 해양탄소싱크와 탄소싱크 거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해양 생태제품의 공급을 확대하여 탄소싱크 경제산업을 강대하게 육성함. 또한, 이를 통해 해양생태 보호의 전제로 해양생태모니터링 설비 개발, 해양폐기물에 대한 종합이용, 해양서비스업, 해양 우량 종자업 등 해양신산업을 발전시킴
- 육·해 통합을 강화하고 해양생태시스템을 보호하면서 과학연구와 성과전환을 모두 중요시하고, 해양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를 함께 추진하는 동시에 해양탄소 싱크를 증가시킴
- 전국범위에서의 블루카본 경제 발전의 본보기를 구축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함. 해양 우위조건을 생태 우위조건 및 경제 우위조건으로 전환하여 보급 가능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해양경제 저탄소·고품질 발전의 전국적 모델을 구축함

■ 주요 목표

- 2025년까지 웨이하이시 블루카본 경제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웨이하이 블루카본 경제의 기여도가 해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도록 함
- 해양산업의 생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해양생태제품 가치실현 사례를 조성하도록 하며, 웨이하이를 국제영향력을 갖춘 국내의 블루카본 경제발전 선도지역으로 건설함

■ '12356'의 중점업무

- “1”개의 연구기지 조성 : 높은 수준의 '아카데미션 워크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웨이하이 해양생태경제 연구원을 강하게 육성시켜 핵심기술의 R&D를 추진하며,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함
- “2”개의 시범기지 구축 : 해양생태모니터링시범기지와 해양생태경제시범구를 구축
- “3”개의 혁신센터 구축 : 해양생태종자업 혁신센터, 해양 Negative emissions 연구 혁신센터와 해양 탄소싱크 거래 혁신센터를 구축
- “5”종류 전문사업 실시 : 해양탄소싱크 사업, 해양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 사업, 블루카본 시범기업 육성사업, 데이터 자원 공유·개방 사업, 국제협력교류사업을 실시
- “6”개의 해양생태산업 발전 : 녹색수산업, 해양폐기물 고부가가치화 이용 산업, 해양 모니터링·탐색 장비 산업, 해양에너지절약·환경보호장비 산업, 해양생태신소재산업, 해양생태서비스업을 발전시킴

■ 저탄소 경제의 새로운 업태 조성

- 웨이하이시는 이 「실시계획」의 실행을 계기로 해양생태경제혁신발전시범구를 계획·건설하고 일련의 해양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의 구축하며, 생태종자업번식기지, 생태보호·복원과학기술혁신본부, 생태 스마트 제조 산업단지를 구축함으로써 해양 저탄소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빠르게 조성할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①해양 Negative emissions 연구센터의 건설 촉진 ②해양생태제품 공급 확대 ③해양탄소싱크 표준체계 및 거래시장 건설 촉진 ④해양생태산업 발전 대대적으로 추진, 해양탄소싱크 산업체인 확장 및 6대 해양생태산업 발전 ⑤국제교류협력 적극적 전개 등이 있음

(观沧海, 2021. 4. 19.)

<https://mp.weixin.qq.com/s/2kqlkSjaAEluGiQnxCygOw>

칭다오(靑島) 「해양공세(海洋攻勢) 2021년 행동방안(3.0버전)」 발표

■ 최근 칭다오시 해양발전위원회 판공실(辦公室)은 「해양공세 2021년 행동방안(3.0버전)」을 발표했으며,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 대외개방, 항만, 해양생태 및 해양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통해 칭다오의 해양자원 우위를 해양산업 우위로 전환시키고 칭다오시가 해양강성 건설의 선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 이전에 발표했던 해양공세 '1.0버전'은 전체목표를 제시했고, '2.0버전'은 연도 세부업무를 지정했고, '3.0버전'은 칭다오시가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목표를 두고 비약적 발전 실현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음
- 이번 버전에는 칭다오시의 해양경제발전 포지셔닝을 더 큰 시야에서 놓고, 중점사업 건설에 포커스를 맞추어 육·해 합동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핵심경쟁력과 국제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공간을 개척할 것을 천명하였음

■ 목표 지향 더욱 강조

- 해양공세 '3.0버전' 발전목표는 더욱 세분화되어 '질과 성과 증가'를 더욱 강조했음
-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포커스를 맞추어 해양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해양경제의 규모 및 투자증가를 확대함으로써 연도별 해양생산총액 성장률 10%, 해양관련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12% 도달하는 목표를 수립했음

■ 해양경제 발전품질 제고를 위한 5개 촉진조치 마련

- 해양산업구도 배치 최적화 촉진. 중국 북방(칭다오)국제수산물거래중심 및 콜드체인 물류기지, 귀신(國信)해양경제 1·2·3차산업 융합발전 선도구역 등 중대사업 건설을 추진함. 일련의 천억 위안 생산액을 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임. 이와 동시에 선박·해양플랜트장비 제조, 해양 바이오의약, 해양전자정보 등을 중심으로 산업체인의 보완, 강화, 확장 등을 추진함
- 현대화 해양산업체계 구축을 촉진함. 높은 수준에서 16개 국가급 해양목장시범구를 건설하고, 1·2·3차 산업 융합발전을 이루는 해양목장종합체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함. 또한, 중국 '블루의약 बैं크' 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해양정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임
- 셋째, 해양과학도시 건설을 촉진함. 해양시범국가실험실, 중국과학원의 해양대과학연구센터 등 플랫폼의 혁신수준을 향상시키며, 해양바이오의약연구원, 심해장비기초과학센터 등 R&D 플랫폼에 의존해서 기업, 자본 및 과학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
- 넷째, 새로운 발전구도에 융합을 촉진. RCEP 체결의 계기로 높은 수준에서 산동자유무역시범구(칭다오) 및 '상하이 합작 시범구(上合示范区)'를 건설하고, 칭다오의 선도역할 및 자오둥(膠東) 5개 도시의 해양산업 우위를 발휘하며, 해양요소거래센터, 자오둥반도(膠東半島)해양과학기술혁신시범구 등의 건설을 추진함
- 다섯째, 해양종합관리 능력제고를 촉진함. '해만책임자제도(灣長制)'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블루해만' 종합 정돈·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칭다오시의 특색발전 더욱 강조

- 심수·원양 수산양식 분야에서는 전국 첫 국가급 녹색양식실험구를 건설하고, 관련산업이 모두 갖추어진 심수·원양 어업 산업체인을 형성하여 천억 위안급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고, 전국 심수·원양 양식발전을 위해 칭다오의 경험과 방안을 제공해 줌
- 해양바이오자원 개발·이용 분야에서는 중국해양대학교의 생명과학기술센터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칭다오에서 자연자원부 산하의 국가심해 유전자 뱅크의 설립을 추진하며, 심해 자원에 대한 연구 및 산업화 이용을 강화함
- 이와 더불어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칭다오는 상하이와 선전 등의 도시가 내놓은 정책과 개혁조치를 참고하면서 칭다오시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촉진의 지도의견 및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임
-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칭다오시는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헬스, 해수담수화 등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해양싱크탱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해양운명공동체 신행시범구 건설 및 심수·원양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青島日报, 2021. 4. 15.)

<https://mp.weixin.qq.com/s/ONXYxfWBd5V2Xum1zXytJw>

하이난성, 보아오(博鳌) 아시아포럼에서 세계도서연구센터 설립 제시

■ 4월 19일 보아오 아시아포럼 2021년 연차총회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도서경제 서브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포럼에서 평페이(冯飞) 하이난성 성장은 "하이난성은 세계도서연구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해양운명공동체를 함께 건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평페이 성장은 하이난성이 다른 도서지역과의 소통교류 강화 및 상호협력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음

- 첫째, 자유무역항 건설의 새로운 계기를 공동 누림. 하이난성은 자유무역항의 정책 우위조건을 충분히 발휘하여 해외 고급 쇼핑, 의료와 교육을 유입하고, 중국 해외소비의 국내로 회귀하는 것을 촉진함. 또한, 도서국가와 지역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을 확대하여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발전계기와 개혁성과를 함께 누리는 것을 장려함
- 둘째, 산업협력을 강화함. 하이난은 독특한 생태 우위조건에 의존해서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 기술산업 및 고효율 열대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3+1' 현대 산업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심해과학 기술, 열대농업과 종자업의 혁신, 항공우주과학기술, 생태환경보호와 신에너지, 생명과 건강,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이난의 특징적인 협력·경쟁 우위조건을 육성하고 있음
- 셋째, 해양환경 보호와 협력을 심화시킴. 하이난성은 국가생태문명실험구의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2030년까지 하이난도에서 경유 자동차의 판매가 금지되고 '플라스틱 사용금지'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임. 이와 동시에 '탄소배출 정점' 도달, '탄소중립 및 해양탄소싱크 등에 관한 연구도 강화할 것임
- 넷째, 도서연구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함. 하이난성은 도서경제서브포럼을 바탕으로 도서연구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계도서연구센터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통해 관련 연구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도서지역의 공동 발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 지원 및 정책성 공공 제품을 제공해 주며 해양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함
- 하이난성은 세계도서연구센터를 건설하고 국제연구팀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성질을 지닌 도서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학술교류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며, 도서국가와 지역의 정부, 민간조직 및 NGO의 관계자 및 연구원의 참여를 촉진함. 초기의 연구중심은 해양경제, 자유무역항, 해상실크로드 연선도서의 발전 및 친환경 관광 등 하이난성의 우위 발전분야에 입각할 것임

■ 회의기간에서 하이난성 외사판공실(外事办)은 「세계 도서발전 연차보고(2020)」를 발표했다

- 이번엔 발표된 보고서에서 코로나 19가 도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특히 도서의 공공위생사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도서의 협력 등을 검토했음
- 이 보고서는 하이난성 외사판공실과 캐나다의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임. 보고서 내용은 3파트로 나뉘는데, 제1파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세계도서경제체의 발전 상황을 회고하였고, 도서 공중보건 관련 데이터를 추가했음. 제2파트는 도서발전과 공중보건에 대해 검토하고 도서지역의 코로나 대응상황을 살펴보았음. 제3파트는 도서의 협력과 합자에 포커스를

맞추어 도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했음

- 왕성(王胜) 하이난성 외사판공실 주임에 따르면, 이 보고서 연구는 코로나19가 도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도서경제의 재건에 대한 정책건의도 제시했음

(海洋知圈, 2021. 4. 19.)

https://mp.weixin.qq.com/s/Hra2_DkBEBpTPICIII6CwA

중국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표명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국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유발했는데, 중국 정부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음
- 지난 4월 15일, 우장하오(吴江浩) 중국 외교부장 조리는 다루미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로 배출 결정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였음
 - 우장하오는 일본의 관련 결정은 세계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여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정부의 불만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 그는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이 사태의 발전을 주목할 것이고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겠다고 밝혔음
- 우장하오는 일본이 자신의 책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독촉했으며, 일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음
 - 첫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해 다시 고려해서 바다 방류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야 함
 - 둘째, 국기기구 프레임 밑에서 중국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기술업무팀을 구성하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국제적인 평가, 심사와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함
 - 셋째, 이익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협상하기 전에 함부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배출하지 말것
- 중국 생태환경부(국가핵안전국)의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향후 대응 조치를 밝혔음
 - 그는 일본정부가 본국 국민의 반대 및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전한 수단을 아직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상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바다로 원전 오염수 배출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음
 - 또한 그는 일본정부가 본국 국민 및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여러 안전 조치수단과 배출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증을 거치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상을 진행한 후 심중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전했음
 - 그는 향후 이 사태의 발전을 계속 주목할 것이고 중국 해양생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생태환경에 조성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며 해양방사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류신화(刘新华) 중국 생태환경부 핵·방사안전센터 수석 전문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배출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 농도, 총량 및 특정 방사성 물질과 침적물,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전했음
 - 류신화는 후쿠시마의 대량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배출된다면 방사성 물질이 배출지점 부근해역에 있는 해양침적물 및 해양생물에 농축된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일부 물질은 조류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출했음

- 그는 일본이 중국의 이웃나라로서 그의 오염수 배출이 연안 배출이든 원양 공공해역 배출이든 방사성 방사성 물질이 조류에 따라 북태평양 해역에서 반드시 확산할 것이고, 중국의 관할해역이 방사성 물질의 오염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新华网, 2021. 4. 15/4. 18./参考资料, 2021. 4. 13.)

http://www.mee.gov.cn/ywdt/zbft/202104/t20210418_829146.shtml;

http://www.xinhuanet.com/world/2021-04/15/c_1127335473.htm

<https://baijiahao.baidu.com/s?id=1696902436272326646&wfr=spider&for=pc>